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1 공통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1. 제시문 해설

(가)에서 키치는 예술에 대한 다양성을 대변하는 문화영역인 동시에 대중들의 일상적 행복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형식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서의 키치는 고급문화의 정반대에 위치한 저급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갈래의 하나이며 그 자체 문화의 다양한 갈래성을 표방하는 예술형식이다.

(나) 언뜻 난해해 보이지만 두 피라미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쉽다. 둘 모두 가운데가 솟아 있고 양끝으로 갈수록 잦아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둘이 아울러 의미하는 바는 보통 수준의 질을 가진 작품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그 이유는 보통의 생활수준에서 보통의 미적 욕구를 가진 대중들이 그러한 작품들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보통 사람들이 다수의 대중을 구성한다고 볼 때 그들의 욕구가 다수의 보통 작품들을 생산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예술의 대중성 혹은 상업성을 다수 대중의 욕구와 더불어 긍정할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여기서 도시 파리를 예술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특성은 다양성, 관용, 획일화의 거부, 해방, 창조, 소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파리를 서술하는 이 말들은 고스란히 예술도 서술한다. 손쉽게 유행에 올라타거나 상식과 통념에 재빨리 부합하는 가치들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고안함으로써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려는 갖은 노력들이 파리에서, 예술에서 아울러 실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가장 대중적인 키치의 힘을 제지하면서(키치는 통속성을 기반으로 하며 상식과 통념의 위에서 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대중들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미래적 힘으로 작동한다.

(라) 다른 제시문의 내용 위에서 이중섭의 태도를 이해하고 판단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중섭의 선택은 이런 기준 위에 있다. '내가 예술가인가, 아닌가.' 이중섭의 선택은 주저함이 없다. '나는 예술가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나는 신문 삽화 따위는 안 그린다.' 이때 이중섭의 예술은 키치나 상업예술과는 교집합을 갖지 않는다. 이중섭에게 예술은 삶과 인간에 대한 고급한 통찰이며 따라서 저급한 삽화 따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예술가인 이중섭은 담뱃값 은박지에 그림을 그릴지언정 신문에는 안 그린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다른 제시문들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은 논술자의 몫이다.

2. 문제 분석

[문제 1]

(나)의 두 그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서술해야 한다. 일단 소득수준의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미적 욕구가 가장 강렬하다. 그러나 생산되는 예술품의 수를 보면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들의 생산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것은 최상위층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도 버겁다. 따라서 중간계층은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품을 향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시문 (가)의 견해를 긍정하는 근거가 된다. 더불어 상위 계층이 향유하는 순수문화와 일반 대중이 향유하는 통속문화의 공존은 예술의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문제 2]

이중섭의 태도를 (가)와 (다)가 역설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 가운데 하나에 귀속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 두 제시문은 예술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중섭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대립되는 두 입장 가운데 하나와 자신의 판단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문제없다.

(가)는 문화 향유 계층이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상업 예술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상업화된 예술은 순수한 예술과의 공존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삽화라는 상업적인 그림을 끝끝내 거부한 이중섭의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삽화는 신문에 연재되어 대중들이 향유하는 그림이다. 이것은 순수예술의 철용성 같은 진입장벽과 달리 접근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대중들의 삶을 미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반면 (다)에 근거하여 볼 때, (라)의 이중섭의 태도는 긍정될 수 있다. (다)는 파리가 예술의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로 관습과 관성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꼽고 있다. 삽화는 그 본질적 속성상, 신문이라는 공간의 제약, 내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새롭거나 익숙지 않은 것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자유로운 창작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중섭의 태도는 관습과 관성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려는 예술가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다)의 근거 중 일부를 이중섭을 비판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다)가 상업적 예술을 긍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를 이중섭을 비판하는 데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예시답안

<문제 1>

문단	내용
1	<p>(나)의 두 피라미드 중 왼쪽의 경우, 보는 바와 같이 질적 수준이 거의 보통에 이르는 작품들의 생산물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내며, 그 수준이 최상과 최저로 갈수록 생산물 수도 아울러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 그림을 참조할 때 분명해진다. 오른쪽 피라미드는 소득 수준이 거의 보통에 이르는 집단의 미적 욕구 수가 가장 많고, 그 수준의 최상과 최저로 갈수록 미적 수준의 수도 함께 적어지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두 피라미드의 종합적 결론은, 미적 욕구가 가장 많은 중산층을 위한 대중적 작품의 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p>
2	<p>이는 자연스럽게 (가)에 대한 옹호로 이어질 수 있다. 질적 수준이 높은 예술작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시장가격과 비례한다는 사실은 대중이 고급예술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키치와 같은 대중 예술은 대중의 일반적 욕구와 그 미적 양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중의 욕구가 충족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매일 대중의 행복을 실현해가는 문화의 한 영역인 것이다. 요컨대 키치는 문화의 대중화, 민주화에 기여하며, 순수문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p>

<문제 2 - 1> 이중섭 비판

문단	내용
1	<p>(라)의 이중섭은 예술의 사회적 의미 영역을 너무나 편협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삽화와 은박 그림의 이분법적 분류는 곧 저급-고급 예술에 대한 그의 지적 차별로부터 비롯되는데, 여기서 일반 대중의 미적 욕구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중섭은 대중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존중과 그 일반적 행복의 미학을 자신의 예술과는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셈이다.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를 키치 문화로 간주하면 이중섭의 이분법은 더욱 확연해진다. 삽화는 이중섭에게 관습과 타성에 젖은 휴식에 불과한 그림 나부랭이다. 그러나 연재소설 삽화는 신문에 실리는 만큼 다수의 대중이 그 감상자다. 신문 삽화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일반 대중의 미적 욕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거나, 모든 대중들 가운데에서도 그 취미가 남다르고 고상한 소수의 대중들에게만 자신의 예술을 선보이겠다는 차별적 선포에 다름 아니다. 어떤 경우든 화가 이중섭도 결국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과 가족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p>
2	<p>상업 예술은 (다)가 비판하는 관성과 관습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예술 창작을 상업적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과 예술의 판매를 상업 시장 안에서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분히 비판적으로 다시 말하면, 고귀한 예술가의 정신은 대중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머물러 있되, 그 정신의 표현물은 반드시 대중들에게 팔아야겠다는 야비한 태도로 이해될 여지 역시 없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예술은 그 수용자인 대중을 무시한 현장에서는 결코 생산도 판매도 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예술은 순수예술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문화영역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영역 안에서 대중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의 틈새를 끊임없이 모색해보려는 노력이다. 대중의 밖은 없으며 따라서 있지 않은 밖에서 생산되는 예술 역시 없다.</p>

<문제 2 - 2> 이중섭 옹호

문단	내용
1	<p>(라)의 이중섭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삽화를 그리지 않는다. 이는 삽화가 예술가의 창작의지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 더 나아가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삽화는 (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투적인 그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정신은 전혀 담을 수 없다.</p>
2	<p>이에 대해 제시문 (가)를 근거로 들며, 이중섭이 대중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존중과 그 일반적 행복의 미학을 자신의 예술과는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신문 삽화는 대중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대중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예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언제나 당</p>

	<p>시의 시대적 요구와 규범 바깥에 있다. 규범이 지시하는 틀 안에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항상 새로운 물꼬를 트고 문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도록 추동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시간을 지나 정착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한 상업 예술들이 창작되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업 예술은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추동해내지 못하며, 그것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과 체계 바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예술이 없다면 상업 예술 역시 생산될 수 없다.</p>
3	<p>오늘날 자본주의는 당장의 생산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전 시대의 예술가들이 삶을 걸고 창작을 함으로써 만들어왔던 새로운 흐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이중섭의 결단은 현실적 요구들과 타협하지 않고, 규범과 체계 바깥에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술이 규범과 체계 안에서만 생산되는 사회는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중의 취향을 저급화시킬 우려가 있다. 오로지 휴식뿐인 예술은 생산도 향유도 편하다. 그러나 그런 예술만이 창작되는 현실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p>

4. 채점 기준

문제1(40점, 20점 기본 점수)

- (1) (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키치가 대중들의 일상적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그 자체로 다양한 문화 갈래의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위의 둘 모두를 서술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며, 하나만 서술하거나 두 개 모두 서술하지 못했을 때는 차등적으로 감점
- (2) (나)의 표를 (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중위계층의 미적 욕구가 가장 크다는 점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급한 작품들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 이를 통해 키치가 그 존재 자체로 다양성을 가지며, 하위 계층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나)의 표와 (가)의 입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 (3) (1)과 (2)가 주어진 분량 안에서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가?
- 문제의 조건상 (2)를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므로 (1)에 대한 분석이 과도한 분량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1)은 (2)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것만 서술해야 한다.
- (4) 분량 감점
- 401~600자 - 감점 없음
 - 351~400, 601~650자 - 2점 감점
 - 301~350, 651~700자 - 3점 감점

- 251~300, 701~750자 - 5점 감점
- 150~250, 751~850자 - 기본점수 부여
- 150자 미만이거나 850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
 ※ (2)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의 내용을 넘어, 자기 생각을 서술한 경우에는 감점

문제2(60, 30점 기본 점수)

- (1) (라)의 이중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먼저 삽화가 특정한 의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업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중섭이 그러한 삽화를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야 한다.
- (2) (가)와 (다)의 입장에서 (라)의 이중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가)는 상업적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라)의 이중섭을 비판할 것이다.
 - (다)는 예술의 본질을 관성과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만큼, 삽화를 거부하는 이중섭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평가할 것이다.
 - (가)를 통해 이중섭을 옹호하거나, (다)를 통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임. (다)의 일부 내용을 통해 이중섭을 비판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그 내용의 설득력에 따라 가점이 이루어질 수도,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3) 명확하게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크게 감점
 - 다양하고, 적절한 근거를 통해 자기 입장을 강화시켜야 함(내용의 설득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주어질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자신이 택한 제시문의 근거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그 밖에 새로운 근거를 든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에 따라 가점할 수 있다.
 - 반대편의 의견을 누락시키기보다 반론이나, 내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 가점한다.
- (4) 분량 감점
- 801~1000자 - 감점 없음
 - 751~800, 1001~1050자 - 2점 감점
 - 701~750, 1051~1100자 - 3점 감점
 - 601~700, 1101~1200자 - 5점 감점
 - 501~600, 1201~1300자 - 기본점수 부여
 - 500자 미만이거나 1300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
 ※ 제시문 독해에 자신의 생각을 넣은 경우 감점.

[공통 사항]

- (1)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가 구사되었는가?
- (2) 문장이 문법에 맞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
- (3) 단락의 구분이 정확하고 그 연계가 논리적인가?
- (4) 원고지 쓰기법의 제반 사항을 잘 이행했는가?
-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정확한가?